

지난 2년 여 간의 호실적을 반납하기 시작한 2023년을 지나 2024년 1분기도 스테인리스 업계는 험난한 여정을 통과했다. 오는 2분기도 계절적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메이커들의 공급 부족 이슈가 터졌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잠잠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급 불안 이슈는 결국 다시 수입재의 유입으로 이어졌다. 포스코의 3개국 AD 연장 신청과 함께 베트남 신규 AD 신청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와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경기의 침체 지속과 총선 이후 PF 위기설, 국내 반도체 투자 지연 이슈, 원료와 환율의 높아진 불확실성, 국내와 수입재의 벌어지기 시작한 가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시장가격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2분기도 정체 전선에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편집자 주]

손연오 기자

kason@steelsteel.co.kr

스틸데일리

## 특집 2 분기전망-스테인리스

# "방향감각 상실"

### 9년 간 2분기 스테인리스 가격추이는 어땠나?

2022년 이후 국내 스테인리스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중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다. 총선 이후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PF 위기설과 반도체 공장 투자 지연 이슈 등으로 수요 개선이 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율의 변동성과 미국 금리 인하의 확실한 시그널 등이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중이다.

니켈가격은 3월 들어 1만 8천 달러대를 돌파하는 듯 하더니 다시 1만 6~7천 달러대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미국 금리인하 변수가 남아 있지만 일단 수급 편더멘털에서 정련니켈 업체들이 감산에도 불구하고 인니와 중국 내 니켈 생산 증가 가능성으로 극적으로 반등할 요인은 커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중국 내수 가격도 약세일로를 걷는 중이다. 일부 소폭 반등 의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내

포스코재 304 냉연 2분기 거래가격 추이

단위: 천 원/kg



수입재 304 냉연 2분기 거래가격 추이

단위: 천 원/kg



수요에 밀리는 장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9년간 4월부터 6월까지 본지 DB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렇다 할 추세를 찾긴 어려운 모습이다. 4~6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적은 없으며, 주로 보합세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이상 니켈 급등 현상과 내수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1분기에는 가격 고점 현상이 발생했지만 수요 부진에 발목잡혀 2분기에는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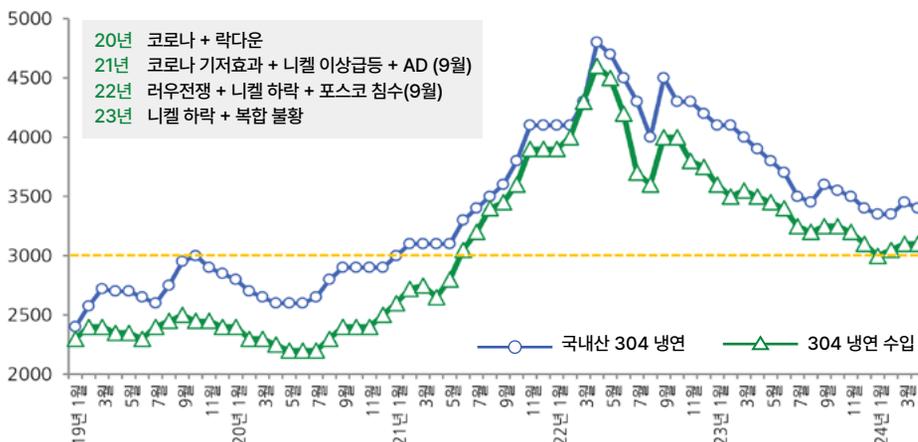
2022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감과 니켈 이상 급등 영향으로 1분기 가격이 급등한 이후 2분기 약세장으로 전환됐다. 2024년의 1분기의 경우도 포스코의 침수사고 영향에 따른 공급 불안감이 감소하고, 수입재 유입 증가와 수요 급감 영향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국내의 가격은 모두 후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의 경우 9월 포스코 인상에 따른 반짝 상승을 제외하고 1년 내내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니켈의 약세장도 나타났으며 여기에 건설과 기계, 가전, 반도체 등 연관 수요산업의 침체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산 매입단가와 수요 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 이에 따른 경쟁구조 과열 양상이 반복되면서 스테인리스 거래가격은 하락 흐름을 보여왔다. 포스코의 3월 가격인상에도 시장의 가격 반등은 크지 않았다. 수입재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2분기에도 크게 개선되진 다소 어려워 보인다.

한국향 수입가격은 AD 영향으로 대단히 낮춰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산 제품과의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도 리스크로 작동 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주변국들의 내수 가격은 큰 반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양회 개최 전 반짝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나마 국내 시장의 경우 AD 규제 영향으로 가격이 타 아시아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수요자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며 가격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중이다. 만약 코로나 이전으로 가격이 회귀가 되어야 한다면 내수와 수입재 가격 모두 톤당 20~30만원 가까이 더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04 STS 냉연 유통 거래가격 추이

단위: 천원/kg



## 2분기 스테인리스 시장을 둘러싼 공급 변수는?

최근 몇 년 간의 가격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언제나 약세장이 이어졌다. 특별한 변수는 주로 공급 혹은 원료단에서 발생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장 강력한 가격강세장이 발생했으며, 둘 중 하나만 발생해도 가격은 강세 혹은 강보합세가 이어져왔다.

올해 2분기의 공급 변수를 살펴보면 내수 시장에서 큰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포스코의 포항2열연 포항 2열연공장은 4월 중하순부터 두 달 가까이 합리화 작업이 진행된다. 품질 향상, 설비 개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에서 비축재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GS재와 헤어라인 등의 공급이 타이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천공장 위탁생산 중단과 창원공장 부분 파업에 따른 공급 변동도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했지만, 3월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생산차질 우려는 이전보다는 감소한 상태다.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일단 현대비앤지스틸 냉연 판매가격은 어느 정도 방어되는 중이다. 헤어라인 제품의 경우 송악공장에서 생산되면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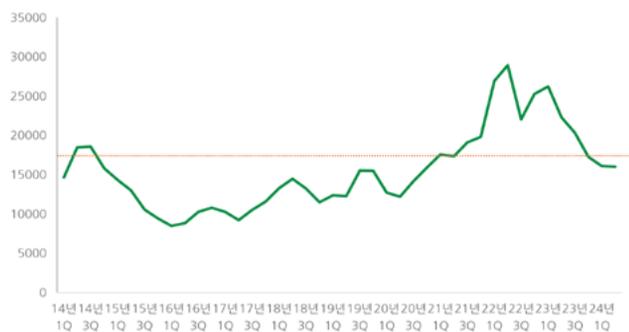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입재 변수이다. 3월 중순 포스코의 AD 재심사 연장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3월 말 기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에 대한 AD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분기 내로는 접수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AD 신청 접수 후 2개월 정도 개시 검토 기간이 있는 점과 3~6개월 정도 예비조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 학습 효과 상 베트남산 수입재 재고 축적이 대거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3개국 AD 연장 조사는 오는 5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산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2분기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2분기의 경우 물량공급과 관련한 이슈보다는 남은 기간 환율과 오퍼가격의 변동성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니켈 가격 향방에 따른 주변국들의 내수가격에도 관심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료가격과 2분기 가격 변수는 무엇?

먼저 원료(니켈) 전망이다. INSG(국제니켈연구그룹)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약 140만 톤의 니켈을 생산했는데 이는 전세계 생산량의 4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올해 들어 최근까지 1억 5,262만 톤에 달하는 니켈 광산 조업권 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107개 니켈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LME 니켈가격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물 생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능력 증가는 니켈 시장의 장기적인 공급 과잉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LME 니켈 재고가

분기별 니켈가격 전망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도 니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S&P Global Ratings社は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곧 멈출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LME 니켈 3개월물 평균가격을 톤당 16,066달러로 전망했다.

반대 전망도 있다. Macquari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니켈 시장의 공급 과잉이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Macquarie사는 2024년 니켈 공급 과잉량을 3만 6,000톤으로 예상했으며,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량이 전년대비 13%를 하회할 경우 시장이 공급부족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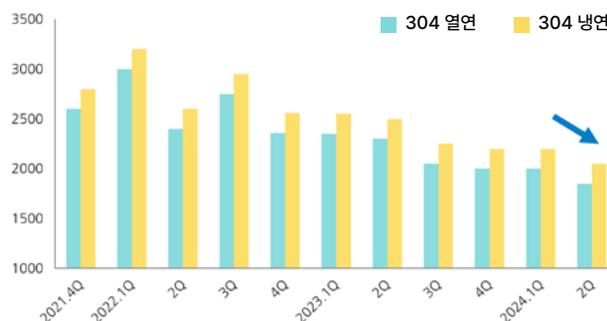
또한 Macquarie사는 시장 위축 및 니켈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LME 니켈 가격은 약 1만 6천 달러에서 바닥을 친 후 상승 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니켈 소비 시장은 13~14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2024년에는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AD와 쿼터 변수다. 올해 AD 규제국들의 쿼터가 다시 재개됐다. 인도네시아의 쿼터는 종전처럼 분기로 나눠져서 일정 수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분기별 물량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도 분기 물량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1분기의 경우 그 전분기 포스코의 침수사고에 따른 공급 불안 공포로 수입을 대거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수입량이 급증했으나 올해에는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심사는 분기 최저가격과 베트남산 신규 AD 제소와 관련한 타임테이블이다.

본지 추정 24년 3분기 스테인리스 최저가격은 304 열연의 경우 톤당 1,850달러, 304 냉연의 경우 톤당 2,05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저가격의 기준은 FOB가 아닌 CIF로 명시되어 있다. 최근까지 입고된 304 냉연의 오퍼가격은 톤당 2,160~2,280달러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별 막판 협상과 물량에 따라 알려진 오퍼가격과 실제 계약 및 통관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STS 분기별 최저가격 추정치

단위: 달러



오는 3분기 스테인리스 최저가격은 중국 우시 지역의 304 냉연 4월 유통가격의 추이가 핵심이다. 최근과 같이 중국 304 냉연 내수가 가격이 1만 4,000위안 수준에서 4월 가격이 유지될 경우 2분기 최저가격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시장의 변수로 4월 내수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경우 3분기 최저가격은 2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4월 중국 시장의 분위기와 가격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스테인리스 내수 가격은 오는 상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국내외 경기 회복 흐름과 궤도를 같이 하며 보험권 혹은 수익성 압박으로 소폭의 상승 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후 위기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니켈 등 원료 가격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스테인리스 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오는 2분기 가격 전망을 두고 상승보다는 보험 혹은 약보험을 대다수 예상했다. Ⓜ